

서산대사의 『심법요초(心法要抄)』에 관한 서지적 연구*

A Bibliographical Study of *Shimbubyocho*(心法要抄)
Written by Buddhist Master Seosan(西山大師)

송 정 숙 (Song, Jung-Sook)**

◁ 목 차 ▷

1. 머리말	3. 「심법요초(心法要抄)」의 간행과 판본
2. 휴정의 생애와 「심법요초(心法要抄)」	3.1 간행
2.1 휴정의 생애	3.2 판본
2.2 휴정의 저술과 「심법요초(心法要抄)」	4. 맺음말 <참고문헌>

< 초 록 >

이 연구에서는 서산대사가 저술한 『심법요초』를 중심으로 저자인 휴정의 생애와 저술, 『심법요초』의 간행자와 간행처, 판본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법요초』의 저자인 서산대사는 조선중기의 유불을 통합한 승려로서 국가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 전장으로 나선 행동하는 지식인이다.

현전하는 『심법요초』는 안심사판본과 해인사판본의 2종이 전하는데, 간행에 관해서는 간기가 있는 안심사판본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안심사판 『심법요초』의 서문과 발문을 보면, 『심법요초』가 세상에 전해져서 간행되는 데에 기여한 사람은 ① 서산의 저술인 『심법요초』를 보관하여 남긴 소요 태능(逍遙 太能), ② 그 가치를 알아보고 유포하고자 한 목양 색(牧羊 穢), ③ 목양 색을 도와서 『심법요초』를 간행한 추계 유문(秋溪 有文), ④ 『심법요초』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서문을 썼던 백곡 처능(白谷 處能)의 4인이다. 이들의 범계를 보면, 4인 모두 임제종파의 벽송 지엄(碧松 智嚴)과 부용 영관(芙蓉 靈觀)의 계통을 잇는 청허계나 부휴계의 영향력 있는 승려였다.

안심사판 『심법요초』는 “時甲辰菊月日大菴山安心寺新刊留置”라고 간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전라도 고산의 대둔산 안심사에서 1664년에 간행되었다. 안심사에서 활동했던 백곡 처능이 안심사를 중흥하고자 우의정 김석주에게 <안심사 사적비>의 비문을 받으려 갔으며, 한편으로는 당시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았던 서산의 『심법요초』 간행을 지원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현전하는 『심법요초』 안심사판본과 해인사판본은 둘 다 목판본으로 판식, 편차, 부록의

* 이 논문은 2010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ongjs@pusan.ac.kr)

접수일: 2012년 12월 3일 최호심사일: 2012년 12월 11일 심사완료일: 2012년 12월 17일

내용이 상이한 이본이다. 안심사판본과 비교할 때, 해인사판본은 부록에 서산대사의 시 대신에 사명대사와 완허당의 글이 실려 있다. 이로 미루어 해인사판본은 서산의 여러 문과 가운데 사명파에서 인출한 것으로 추측된다.

要語: 서산대사, 『심법요초(心法要抄)』, 안심사, 청허 휴정(淸虛 休靜), 소요 태능(逍遙 太能), 목양 색(牧羊 曠), 추계 유문(秋溪 有文), 백곡 처능(白谷 處能)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life and works of Hyujung(休靜) and focuses on the bibliographic characteristics of *Shimbubyocho*(心法要抄), written by Buddhist Master Seosan(西山大師). Through this focus, the study analyzes the life and works of author Hyujung(休靜).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Buddhist Master Seosan was a monk who made consilience between Confucianism and Buddhism and one of the active intellectuals who went into battle in order to rally against the crisis facing his nation.

The existing editions of the *Shimbubyocho* were published at Anshim Temple(安心寺) in 1664 and at Haein Temple(海印寺). This study focuses mainly on the edition from Anshim Temple, especially in relation to publishing aspects, as the Haein Temple edition doesn't have any information in regards to publishing. As referenced in the preface and postface of the *Shimbubyocho*, there are four people who contributed to its publication: Soyo Taeneung(逍遙 太能), Mokyang Saek(牧羊 曠), Choogyee Yoomoon(秋溪 有文) and Baegkok Cheoneung(白谷 處能). These monks share a Buddhist lineage, connected to the mentors of Imjejong(臨濟宗), Byeoksong Jieom(碧松 智嚴) and Booyong Younggwon(芙蓉 靈觀). This is indicative of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se four masters.

The existing editions of the *Shimbubyocho*, that of Anshim Temple and that of Haein Temple, are both woodblock editions and these two editions have different bibliographic characteristics. Of note, as the Haein Temple edition also features the texts of Seosan and Wanheodang(玩虛堂), it appears that the Buddhist lineage of Samyeong was revealed, at that time, through the publishing of the Haein Temple edition.

Key words: Buddhist Master Seosan(西山大師), Anshim Temple(安心寺), Chunghur Hyujung(淸虛 休靜), *Shimbubyocho*(心法要抄), Soyo Taeneung(逍遙 太能), Mokyang Saek(牧羊 曠), Choogyee Yoomoon(秋溪 有文), Baegkok Cheoneung(白谷 處能)

1. 머리말

「심법요초(心法要抄)」는 조선중기의 승려이며 승군장이었던 휴정(1520~1604), 즉 서산대사의 저술이다. 이 책은 선(禪)의 요지를 간략히 서술한 책인데, 휴정은 왜 이 책을 저술하였을까? 그리고 「선가귀감」, 「선교석」, 「선교결」 등 서산의 여러 저술들과 「심법요초」는 어떤 관계일까?

현전하는 「심법요초」는 안심사판본과 해인사판본의 2종이 전하는데, 간행에 관해서는 간기가 있는 안심사판본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안심사판 「심법요초」의 서문과 발문을 보면, 이 책이 세상에 전해져서 간행되는데 기여한 사람은 ① 서산의 원고를 수습한 소요 태능, ② 이 원고의 가치를 발견한 목양 색, ③ 목양 색을 도와 간행한 추계 유문, ④ 서문을 쓴 사람은 백곡 처능이다. 이 스님들은 서산과 어떤 인연이 있으며, 「심법요초」의 어떤 점에 주목하여 원고를 보존하고 간행하였을까? 간기에 의하면, 간행년은 갑진년이고, 간행처는 전라도 고산의 대둔산 안심사이다. 대둔산 안심사는 왜 「심법요초」를 인출하였을까? 현전하는 「심법요초」의 두 판본, 즉 안심사판본과 해인사판본은 판식, 편차, 부록 등이 어떻게 다른가?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청허의 생애와 저술, 「심법요초」의 간행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교학 분야의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불교학 전공자의 자문을 받아 불교 관련 논의의 타당성을 검증받을 것이다.

우선 서산의 저술 가운데 「심법요초(心法要抄)」의 위상을 살피기 위해 「청허당집」을 비롯해 서산대사가 남긴 저술들과 「심법요초」의 내용을 검토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 대둔산 안심사에서 「심법요초」를 판각하게 된 인연을 파악하기 위해 대둔산 안심사와 휴정, 「심법요초」의 서문을 쓴 백곡 처능(白谷 處能)과 발문을 쓴 추계 유문(秋溪 有文) 등과 휴정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허당 행장(淸虛堂 行狀)>과 「조선후기 불교사연구」, 「한국불교인물사사사」, 「선학사전」 등의 불교문헌을 통해 그 관련성을 파악할 것이다.

판본에 관해서는 현전하는 판본들을 수집, 조사해서 판식, 편차, 부록 등을 비교 분석하는 서지학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2. 휴정의 생애와 『심법요초(心法要抄)』

2.1 휴정의 생애

『심법요초(心法要抄)』의 저자는 본문 첫 장 권수제인 “心法要抄” 다음 줄의 “曹溪退隱 淸虛堂述”라는 기록으로 보아 서산대사로 알려진 휴정(休靜, 1520~1604)이다. 휴정의 직계 제자인 편양 언기(鞭羊 彦機)가 쓴 “금강산퇴은 국일도 대선사 선교도총섭 사자 부종수교 겸등계 보제대사 청허당행장(金剛山退隱國一都大禪師禪教都總攝 賜紫扶宗樹教兼登階普濟大師淸虛堂行狀, 이하 청허당 행장)”¹⁾에서 간추리면, 서산의 생애는 다음과 같다.

휴정은 법명(法名)이며, 호는 청허(淸虛)이며 오랫동안 묘향산에서 주석했기 때문에 서산이라고 부른다. 속성은 완산 최씨이다. 스님은 정덕 경진년(1520)에 태어났다. 이보다. 나이 겨우 아홉에 시와 문장에 능하여 고을 수령이공이 한양으로 데려가 성균관에 취학시킨 뒤로 삼 년 동안 지내며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거듭 낙방하였다.

남쪽 지리산을 유람하며 산천을 누비다가 불교서적을 열람하던 중 ‘마음을 비우고 급제한 자가 틀림없는 대장부’라는 구절에 이르러 비로소 종전에 배웠던 것들이 한낱 허명에 지나지 않다고 느끼게 되었다. 이에 송인(崇仁) 장로 밑에서 삭발하고 영관대사(靈觀大師) 밑에서 교법을 들었다.

30세(1552) 때 선과(禪科)에 합격하여 선교 양종(禪教兩宗)의 판사(判事)를 겸하다가 하루는 “내가 출가한 본래 뜻이 어찌 이런 것들에 있겠는가!”라고 탄식하며 금강산으로 들어갔다.

임진년(1592)에 왜적(倭賊)이 삼경을 함락하자 대가(大駕)가 서쪽 용만으로 옮겨갔다. 임금이 “시국이 이처럼 위태로우니 어려움에서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1) 鞭羊 彦機, “金剛山退隱國一都大禪師禪教都總攝 賜紫扶宗樹教兼登階普濟大師淸虛堂行狀.” 『淸虛堂集』 卷4, 附錄.; 김영옥, 조영미, 한재상 역주, 『정선 휴정(精選 休靜)』, 한국전통사상총서 불교편 3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韓國傳統思想叢書刊行委員會, 2010), 55-65.

다"라 하시고 팔도십육종선교도총섭(八道十六宗禪敎都摠攝)²⁾이라는 벼슬을 내렸다. 스님은 순안 범흥사에 이르러 승도(僧徒)를 모아 천병[天兵, 명나라 군사]을 도왔다.

임금의 군대가 서경을 회복하고 왜적은 남쪽으로 도주하자 송도까지 추격하기에 이르렀다. 스님 스스로 몸이 늙어 왕성한 기세를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의 문도인 유정(惟政)과 처영(處英) 등의 무리를 불러 당부하고, 곧이어 임금으로부터 받은 총섭의 인장을 반납하고 물러나 묘향산의 예전 은거처로 들어갔다. 난을 평정하고 그 공과를 따진 다음 조정에서 의문하여 “비록 출가한 스님일지라도 공이 있으면 상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한 끝에 ‘국일도대선사 선교도총섭 부종수교 보제 등계존자(國一都大禪師 禪敎都摠攝 扶宗樹敎 普濟 登階尊者)’³⁾라는 직호를 내렸다.

85세에 묘향산에서 입적하시니 때는 갑진년(1604) 정월 23일이었다. 입실제자 원준(元俊)과 인영(印英) 등이 다비하고 여러 조각의 사리를 수습하였다. 그중 한 조각은 원준 등이 얻은 금강사리 두 과와 함께 보현사⁴⁾ 서쪽 안심사에 부도를 세워 봉안했으니, 나옹왕사와 같은 등급이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서산은 성균관에서 3년 동안 수학한 후 출가하였기 때문에 유불(儒佛)을 통섭한 승려였으며, 국가의 위기에 승병을 모아 전장으로 나선 행동하는 지식인이었다.

휴정의 불교 사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의 법계를 보는 것이 지름길이다. 이에 대해서는 편양 언기가 쓴 “청허당 행장”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스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인 언구(言句)가 임제종의 가풍을 잃지 않은 것에는 뿌리와 근원이 있다. 우리 동방의 태고화상(太古和尚)께서 중국 하무산에 들어가 석옥 청공(石屋 淸珙)의 법을 이어받아 환암 혼수(幻庵 混修)에게 법을 전했고 환암은 구곡 각운(龜谷 覺雲)에게 전했으며, 구곡은 등계정심(登階正心)⁵⁾에게 전했고 등계는 벽송 지엄(碧松 智嚴)에게 전했으며, 벽송은 부용 영

2) 승병의 총사령관에 해당함.

3) 우리말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나라에서 유일한 최고의 대선사이고 선종불교의 도총섭이며, 종교의 한 과를 세워 교리를 떨치고 계위에 올라 세상을 널리 구제한 존엄스러운 이다.”

4) 원문에는 “普賢西安心寺”로 되어 있다. 이를 「정선 휴정(精選 休靜)」에서는 ‘보현산’이라고 번역하였으나, ‘보현산’이 아니라 ‘보현사’가 적절하다고 본다. 서산과 인연이 없는 경북 영천의 ‘보현산’이라기보다는 서산이 장년 이후 주로 머물렀던 ‘묘향산 보현사’를 일컫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용태, 『조선 후기 불교사연구: 임제법통과 교학전통』, (서울: 신구문화사, 2010), 116-117 참조.

5) 登階 正心. 생몰년 미상, 벽계 정심(碧溪 正心)이라고도 한다.

관(芙蓉 靈觀)에게 전했고 부용은 서산 등계(西山 登階)에게 전했는데, 석옥이 바로 임제의 적통을 이어받은 법손이기 때문이다.⁶⁾

윗글에서 보듯이, 휴정의 법맥은 중국 5가(家) 7종(宗) 중의 한 종파인 임제종에 속한다. 임제종은 선종 제6조(祖)인 혜능(慧能)으로부터 남악(南嶽)·마조(馬祖)·백장(百丈)·황벽(黃檗)을 거쳐 임제 의현(臨濟 義玄, ?~867)에 이르러 일가(一家)를 이룬 종파이다.⁷⁾

위 <청허당 행장>에서 밝힌 대로 서산의 법계를 정리하면, 태고 보우(太古 普愚, 1301~1382) → 환암 혼수(幻庵 混修, 1320~1392) → 구곡 각운(龜谷 覺雲) → 등계 정심(登階 正心) → 벽송 지엄(碧松 智嚴, 1464~1534) → 부용 영관(芙蓉 靈觀, 1485~1571) → 서산 등계(西山 登階)로 이어져서 임제종조인 태고 보우의 7대손이 된다.⁸⁾

이처럼 휴정은 임제종을 계승한 승려로서 선종판사와 교종판사를 겸했지만 늘 선을 우위에 두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의 불교사상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선(禪)과 교(教)의 합일을 주장하면서도 그 둘을 분별한 선교관(禪教觀)이다. 이에 대해서는 편양 언기도 <청허당 행장>에서 “선(禪)과 교(教)의 혼잡을 옥과 돌을 가려 내듯이 분명히 구분한 것”⁹⁾을 스승인 휴정의 공(功)으로 들고 있다.

이렇듯 서산은 한국불교사에 문제가 되어 왔던 선과 교의 대립·갈등문제를 사교입선(捨教入禪)이라는 선 우위의 체계로 정립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미 규봉 중필의 『선원제집도서』 같은 저술류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만 서산이 보다 쉬우면서도 간결하게 정리하였던 것이다. 또한 조주의 무자화두를 들면서도 ‘닭이 알을 품고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처럼 절실하고 간절하게 하여야 한다’는 몽산 덕이나 ‘공부할 때 큰 믿음(大信根), 크게 울분함(大憤志), 큰 의심(大疑情)

6) 편양 언기, 앞글. ; 김영옥, 조영미, 한재상 역주, 앞책, 62.

7) “임제종”,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37006&mobile&categoryId=200000094>}, 2012.10.25 접속.

8) 목정배, “청허당 행장: 서산대사의 사상과 생애,” {<http://blog.daum.net/park3854a/1004>} 참조. 2012.10.4 접속.

9) 편양 언기, 앞글. ; 김영옥, 조영미, 한재상 역주, 앞책, 62.

을 가져야 한다’는 고봉 원묘스님의 선풍도 강조하였다. 이는 서산의 법조인 벽송 지엄이나 멀리는 조계종의 중흥조인 태고 보우의 선풍을 계승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서산의 선풍은 편양 언기, 사명 유정, 소요 태능, 정관 일선, 중관 해안 등 5대 문도를 비롯한 1,000여명의 제자들이 부휴 선수스님의 문도들과 더불어 하나의 종풍을 지닌 조선불교의 승단을 이루게 하였고 지금까지 불교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¹⁰⁾

2.2 휴정의 저술과 「심법요초(心法要抄)」

서산의 저술로는 행장에서 “『석가여래비문(釋迦如來碑文)』 1통, 『선가귀감(禪家龜鑑)』 1권, 『선교석(禪教釋)』 1권, 『운수단(雲水壇)』 1권, 『선교결(禪教訣)』 3지(紙), 그리고 시영·제소·기문을 모은 3권 등이 세상에 유통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¹¹⁾ 이외에 『유가귀감(儒家龜鑑)』, 『도가귀감(道家龜鑑)』, 『심법요초(心法要抄)』, 『설선의(說禪儀)』, 『제산단의문(諸山壇儀文)』 등이 있다. 휴정 저술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선교석』, 『선교결』 등은 선교양종을 제도상으로 통합질서를 세우기 위한 토대로, 그에 대한 이론 정립을 위하여 저술한 것으로 짐작이 된다. 여기서 그는 선(禪)을 주로 하고 교(敎)를 종으로 하는 禪的 통일불교를 지향하고 있다.

『운수단』, 『설선의』, 『제산단의문(諸山壇儀文)』은 예식집이다. 종교에 있어서 의례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고려말기까지 존속하던 여러 종파들이 통폐합되어 이들이 각자 달리하고 있던 의례의 불일치는 교단의 정서와 질서체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 역시 종단의 통일과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10) 황인규, “[高僧 다시보기]휴정 스님과 조선불교 중흥 (끝),” 현대불교 홈페이지, {<http://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614>}, 2011.7.3 접속.

11) 이 가운데 “시영·제소·기문을 모은 3권”은 『청허당집(淸虛堂集)』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전하는 『청허당집』은 4권 2책이다. 편양 언기가 <청허당 행장>을 지을 당시에는 『청허당집』이 3권으로 편철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가귀감(三家龜鑑)』은 儒·道·佛의 각종 관련 서적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채록하여 둔 것이다. 편찬체제를 보면, <유가> - <도가> - <불가>의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는 휴정의 삼교(三教) 조화 내지 융화사상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끝이어 편찬된 『삼교귀감(三教龜鑑)』에 와서는 <선가귀감(禪家龜鑑)> 2권을 맨 앞에 놓고, <유가귀감(儒家龜鑑)>과 <도가귀감(道家龜鑑)>을 부록으로 놓고 있어 불가(佛家) 우위로 순서가 바뀌었다.¹²⁾ 특히 <선가귀감>은 사명대사가 일본에 전하여 일본에서 약간 쇠하던 오산선(五山禪)의 중흥에 계기가 되었고, 뒷날 일본 임제종의 지침서가 되기도 하였다.

『심법요초』는 선(禪)의 요지를 간략히 서술한 책으로 휴정이 선사로서의 면목을 보여주면서, 그의 중심사상을 나타내는 결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¹³⁾ 백곡 처능(白谷 處能)이 쓴 『심법요초』의 서문을 보면, “서산이 틈틈이 도로 들어가는 요령을 기술하고 ‘심법요초’라는 제목을 붙이셨다”¹⁴⁾고 하고, 추계 유문이 쓴 발문에 의하면, “서산이 『심법요초』를 지은 본래 뜻은 마음을 닦는 사람들에게 힘들이지 않고 쉽게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다.”¹⁵⁾고 하였다.

이 책에는 <서설(序說)>이 실려 있는데, 먼저 심법(心法)의 절대성을 제시하는 가운데 참된 부처와 참된 법(法)은 형상이 없는 것이므로 학인(學人)들은 부처나 법에 집착하지 말고 조사(祖師)의 공안(公案)을 힘껏 탐구하여 홀연히 크게 깨닫는 것으로써 입문(入門)을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교학자병(教學者病)>·<선학자병(禪學者病)>·<삼승학인병(三乘學人病)>에서, 교학(敎學)을 공부하는 사람과 선(禪)을 공부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기 쉬운 병[오류]에 대하여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즉 총명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론만을 떠벌리는 것은 교학자(敎學者)의 큰 병이며, 훌륭한 스승을 구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즐기만 할 뿐 참된 해탈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12) 宋日基, “『禪家龜鑑』成立考,” 『書誌學研究(書誌學會)』 제7집(1991.6). 34.

13) 중앙승가대학교 승가대신문사 편, 『한국불교인물사상사』 (서울: 중앙승가대학교 승가대신문사, 2000), 168-169.

14) 김영욱, 조영미, 한재상 역주, 『정선 휴정(精選 休靜)』, 263-264.

15) 윗책, 321-322.

선학자(禪學者)의 병통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선 공부의 종류를 참의(參意)와 참구(參句)로 구분하고 있다. 참의는 마음과 생각으로 헤어져서 홀연히 심법(心法)을 깨닫는 것이고, 참구는 마음과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마음의 참면목을 발명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참의는 교(敎)에 해당하고, 참구는 선(禪)에 해당한다고 하여 선과 교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참선문(參禪門)>에서는 조사선(祖師禪)을 참구할 것과, 구자무불성화(狗子無佛性話)를 공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염불문(念佛門)>에서는 입으로 부르는 것이 송불(誦佛)이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염불임을 밝히고, 일심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생각하면 생사의 윤회를 벗어난다고 하였다. <삼중정관(三種靜觀)>에서는 염불에는 구송(口誦), 사상(思像), 관상(觀相), 실상(實相)의 네 가지가 있는데,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므로 그에 따라 달리 하여야 한다고 했다. <선송(禪頌)>에서는 한량없는 행문(行門) 가운데 참선이 제일이므로 조사관(祖師關)을 참구하라 하였고, 「염송」에서는 염불에 의지하면 반드시 생사를 초월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밖에 <교외별전곡(敎外別傳曲)> · <초발심보살수행(初發心菩薩修行)> · <대승인수행(大乘人修行)> · <선가지해이자취위병(禪家知解二字最爲病)> · <상근대지자오처(上根大智自悟處)> · <직지인심무방편(直指人心無方便)>을 비롯하여 수행(修行)의 지침이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과 자연오도(自然悟道)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3. 「심법요초(心法要抄)」의 간행과 판본

3.1 간행

「심법요초」의 간행에 관해서는 서문과 발문, 간기 등에서 간행과 관련한 정보가 있는 안심사판본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백곡 처능(白谷 處能)이 쓴 『심법요초』의 서문을 보면, ① 서산이 틈틈이 도(道)로 들어가는 요령을 기술하고 ‘심법요초’라는 제목을 붙이셨다. ② 소요대사(逍遙大師)가 상자에 보관해 두고 알아보는 자를 기다렸는데, ③ 목양 색(牧羊 蹟) 도인이 간행하여 유포하고자 하기에 ④ 내[처능]가 『심법요초』의 가치를 “한 글자 한 마디도 도를 꿰지 못한 것이 없었으니, 무엇이 이처럼 탁월할 수 있겠는가! (중략) 뛰어난 글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이다.”¹⁶⁾라고 평가하고, 서문을 썼다.

다음으로 『심법요초』의 발문을 보면, ① 서산이 이 『심법요초』를 지은 본래 뜻은 마음을 닦는 사람들에게 힘들이지 않고 쉽게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다. ② 후대에 배우는 자들은 모두 초나라의 임금과 신하들처럼 보는 안목이 없어서, 도리어 버려진 물건으로 여겼다. 그런 이후 거의 50여 년이 흘렀던 것이다. ③ 목양 색 대사가 한번 보고서는 그것이 귀중한 것임을 홀로 알아보았다. 한편으로는 월개(月蓋)왕자의 범공양을 본받은 측면이 있기 때문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서산의 본래 뜻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④ 추계 유문(秋溪 有文) 또한 목양 색 대사가 베푼 만 가지 공덕 중 하나를 돕게 되었다.¹⁷⁾

이를 통해 『심법요초』가 간행되어 세상에 전해지는 데에는 서산의 저술인 『심법요초』를 ① 보관하여 남긴 소요 태능, ② 가치를 알아보고 유포하고자 한 목양 색, ③ 목양 색을 도와 간행한 추계 유문, ④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서문을 쓴 백곡 처능의 4인이 크게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심법요초』의 권말에 있는 간기를 보면, “갑진년 음력 9월 모일(某日) 대둔산 안심사에서 새롭게 간행하여 보관하다[時甲辰菊月日大屯山安心寺新刊留置]”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대둔산 안심사에서 서산 사후 50년이 지난 갑진년인 1664년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심법요초』의 간행에 기여한 4인은 어떤 사람이며, 서산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 대둔산 안심사는 이들과 어떤 관련이 있어서 『심법요초』를 간행하여 세상에 널리 유포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겠다.

16) 김영욱, 조영미, 한재상 역주, 『정선 휴정(精選 休靜)』, 263-264 참조.

17) 윗책, 321-322 참조.

3.1.1 간행자

3.1.1.1 소요 태능

소요 태능(逍遙太能, 1562~1649)은 서산이 저술한 『심법요초』를 세상에 전한 사람이다. 태능은 스님의 휘이며 호는 소요(逍遙)다. 속성은 오(吳)씨였으며 전북 담양 출신이다. 1562년 9월에 태어났다. 13세가 되던 해 백양사에 놀러갔다가 세속 바깥의 경계를 보고는 문득 출가의 뜻을 갖게 되었다. 곧이어 진대사에게 나아가 출가하고 경율을 공부하였는데 조금도 남김 없이 그 뜻을 익혔다고 한다. 이 무렵 부휴대사가 속리산과 해인사 등에서 교화를 떨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밑으로 나아가 화엄경을 공부하여 오묘한 뜻을 다 얻었다. 부휴의 문하에는 수백 명의 문도가 있었는데 태능은 운곡 충휘, 송월 응상과 함께 ‘범문삼결’로 불릴 정도로 학문을 인정받고 있었다.

부휴의 문하에서 계속 수학하던 태능은 서산대사가 묘향산에서 깊은 가르침을 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가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을 가지고 물었다. 태능을 본 서산은 단번에 그가 범기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알아챘다고 하며 그에게 발우를 전해주었다. 서산의 문하에서 3년 동안 수행하던 그가 법을 설하기 시작하자 청중이 문을 가득 메울 정도로 몰려들었는데 이 때 태능의 나이는 20세에 불과하였다. 얼마 후 서산대사가 법계(法偈)를 주었는데 그 법계를 가지고 남쪽 지방을 돌며 여러 종장들을 만나 묻고 다녔으나 아무도 그 뜻을 풀어주지 못하였다고 한다.

결국 이 계승에 대한 시원한 해답을 찾지 못한 태능은 다시 서산을 찾아와 그 뜻을 물었으며 여기에서 비로소 무생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로부터 태능은 자유로운 경지에서 노닐게 되었으며 임제종풍(臨濟宗風)을 크게 떨쳐나갔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서산, 사명 등이 의병을 이끌고 전투에 참가하였는데 스님은 절을 지키면서 경건한 자세로 불전에 기도하며 부처님의 가호를 빌었다.

소요 태능은 조선 중기의 걸출한 선승으로, 뛰어난 시재를 지닌 시승으로도

평가된다. 그의 선사상은 임제선의 전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철저하게 서산의 사상을 계승한 면모도 보인다. 그의 문집 가장 앞부분에 실려 있는 『중간소요집서(重刊逍遙集序)』에는 “소요선사는 서산 청허조사의 고족 제자이다. 조사의 문중에서 선사(태능)와 편양사를 선종이라 하고 송운사를 교종이라 하였는데 이들이 일시에 모두 우뚝하였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로 본다면 서산의 법을 이은 여러 승려 가운데 태능은 편양 언기와 함께 선의 대표적 계승자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⁸⁾

소요 태능은 휴정의 4대 제자의 한 사람으로 소요문파를 형성하였다. 태능은 임진왜란 때 승장으로 활약한 후 남한산성 축성에도 조력하였고 뒤에 충군우국(忠君憂國)을 인정받아 1652년 효종에게 혜감(惠鑑)이라는 시호를 하사받았다. 그는 처음 백양사에서 출가한 후 부휴 선수에게 교학을 배웠고 이어 청허 휴정에게 선을 전수받아 그 제자가 되었다. 만년에는 지리산 연곡사에 주석하였는데 중문안(宗門眼)을 개할(開割)하였다고 자부하였다.

3.1.1.2 목양 색

소요 태능(逍遙 太能, 1562~1649)이 『심법요초』를 전한 지 오십여 년만에 목양 색(牧羊 蹟)이 그 가치를 알아보고 간행하여 세상에 전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김용태는 <심법요초 해제>에서 “목양은 당시 건봉사(乾鳳寺)를 중심으로 염불수행에 힘썼던 목양 영안(牧羊 靈眼)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다”¹⁹⁾고 하였다. 그러나 목양 색은 대둔산 안심사가 있었던 전라도 고산(高山) 출신인 원응지근(圓應 志勤)의 제자로서 추계 유문과 동문수학한 목양 명색(牧羊 明蹟)으로 추정된다.²⁰⁾ 하지만 아쉽게도 목양 명색에 관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18) 김상영, “대중 교화와 후학 양성에 노력했던 태능선사,” 중앙승가대학교 승가대신문사 편, 『한국불교인물사상사』 (서울: 중앙승가대학교 승가대신문사, 2000), 252-255.

19) 김용태, “심법요초 해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kyujanggaksnu.ac.kr/MOK/CONVIEW.jsp?type=MOK&ptype=list&subtype=sm&lclass=AL&mclass=&sclass=&ntype=hj&cn=GR30699_00}, 2011.7.12 접속.

20) 李哲敎, 一指, 辛奎卓 共著, 『禪學辭典』 (서울: 佛地社, 1995), 894-895.

3.1.1.3 추계 유문

목양 색을 도와 「심법요초」를 간행한 추계 유문(秋溪 有文, 1614~1689)은 조선 후기의 선승(禪僧)으로 휴정 문하의 4대파 중 하나인 정관파(靜觀派)의 제4대 조사(祖師)이다. 성은 김씨(金氏). 자는 환호(煥乎), 호는 추계(秋溪). 취성(鷲城) 출신이다. 13세에 출가하여 대문사(大菴寺) 국룡 범패(國隆 梵唄)를 은사로 삼아 득도하였고, 동림(東林)을 계사(戒師)로 삼아 구족계(具足戒)를 받았으며, 지근(志勤)의 법(法)을 이어받았다.

1686년(숙종 12)부터 전주의 쌍계암(雙溪庵)에 머물다가 그곳에서 죽었는데, 탑은 송광사(松廣寺)에 남아 있다. 법을 이은 제자로는 자수(子秀)가 있다.²¹⁾

3.1.1.4 백곡 처능

「심법요초」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서문을 썼던 백곡 처능(白谷 處能, 1617~1680)은 서산의 제자인 벽암 각성(碧巖 覺性)의 문하로서 대문사(大文士)의 자질을 갖춘 독자적 불교사상가이며, 조선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긴 고승이다. 그는 송유배불정책으로 불교가 명맥을 유지하기도 힘들었던 조선 중기의 가혹했던 배불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상소문(上疏文)을 국왕에게 올리고 시정을 촉구했던 유일한 승려다.

15세에 출가하여 속리산에서 불법을 공부하다가 17~18세 때 서울로 올라간 백곡은 유학자와 문신들을 찾아다니며 불법보다는 한문과 유학 공부에 열중했다. 그러나 어느 날 경사(經史)에 대한 지식이나 뛰어난 문장이 하잘 것임을 깨닫고 멀리 지리산 쌍계사의 벽암 각성을 찾아가 그의 제자가 되었다. 벽암은 부휴의 법을 이은 선승이다. 벽암 문하에서 20년간 수도에 전념한 후 그는 스승의 법을 전해 받았다. 58세 때인 1674년(현종 15)에는 팔도선교도총섭(八道禪敎都摠攝)

21) 네이트 한국학, {<http://koreandb.nate.com/history/people/detail?sn=10543>}. 2012.11.15 접속.

을 맡아 남한산성에 3개월 머물다가 그 직을 사임하였다. 그 후 속리산, 계룡산, 성주산 등지에서 법석을 열어 후학들을 지도하다가 64세가 되던 1680년 금산사에서 대법회를 열고, 그해 7월 입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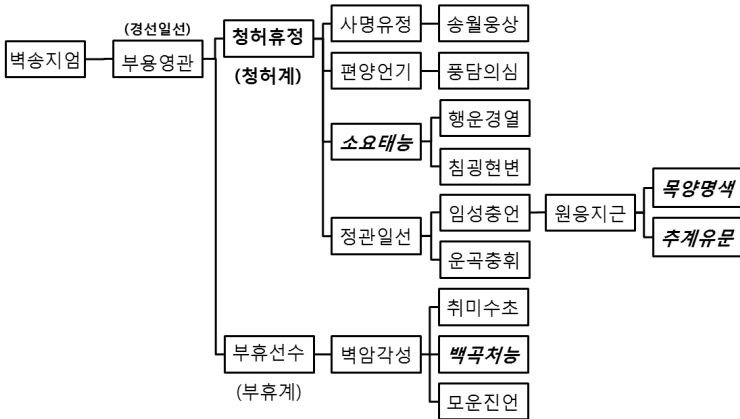
백곡의 선교관(禪教觀)은 휴정의 그것과 기본적으로 같으면서도 한걸음 더 나아가 선과 교가 완전히 합일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을 취해 눈길을 끈다. 한국불교의 통불교적 전통은 신라 원효의 화쟁(和諍)사상을 뿌리로 고려시대 의천의 교관 견수, 지눌의 정혜쌍수로 전개되면서 선교일치의 총화적이며 통불교적 사상의 흐름을 형성해왔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서산에 의해 그런 사상이 재삼 확인, 실천된다.

서산의 선교관은 『선가귀감』에서 ‘선은 부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의 말씀(禪是佛心 教是佛語)’이라고 표현한 한 마디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서산은 선교일치를 말하면서도 수행에 있어 선을 교보다 우선하는 점을 분명히 하는데 비해, 백곡은 선과 교를 구분해 차이를 두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선과 교는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선문과 교문으로 나뉘어 한쪽만 고집, 서로 비방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타인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백곡을 이야기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국가의 배불정책에 대해 시정을 촉구한 ‘간폐석교소(諫廢釋教疏)’이다. 백곡이 생존했던 조선 중기는 그동안 계속돼 온 척불로 교단의 폐쇄는 물론 승려의 사회적 지위 또한 팔천(八賤)의 하나로 전락되었던 시대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백곡은 스스로 전국 승려를 대표하여 8천여 자에 이르는 전무후무한 대문장으로 국왕에게 폐불 정책이 잘못임을 간하며 시정을 촉구했던 것이다. ‘간폐석교소’는 백곡이 다양한 사례를 들면서 깊은 식견을 바탕으로 간절하게 쓴 것으로, 그 내용이 일관되고 논리 정연하여 조선불교역사의 기념비적 문장으로 평가받고 있다.²²⁾

22) 백곡은 ‘간폐석교소’에서 불교가 중국이 아닌 이방에서 생긴 것이라는 점, 인과응보의 그릇된 견해로 윤회를 주장한다는 점, 농사를 짓지 않고 놀면서 재물을 소모한다는 것 등 여섯 가지 이유 때문에 국왕이 불교를 말살하려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 다음 이 6개항의 척불논리와 그에 따른 폐불의 부당함을 충분한 사례와 경전 등에 근거한 논리로 하나하나 논파했다. 6개항에 대한 논증은 불교의 철학적 교리의 측면보다는 현실적인 면을 강조함으로써 불교존재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서산이 남긴 『심법요초』가 보존되어 세상에 널리 전해지는 데에 기여한 4인의 법계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청허계와 부휴계 주류의 계보²³⁾

위의 ‘청허계와 부휴계 주류의 계보’에서 보듯이, 『심법요초』의 원고를 보관하여 전한 소요 태능은 청허 휴정의 4대 제자의 한 사람으로 선의 대표적 계승자이고, 『심법요초』의 가치를 발견한 목양 색은 추계 유문과 원응 지근 문하에서 동문 수학한 목양 명색으로 추정되며, 『심법요초』의 간행을 도운 추계 유문은 서산 문하 정관파의 4대 조사이며, 『심법요초』의 서문을 쓴 백곡 처능은 휴정과 동문 수학한 부휴 선수의 재전(再傳) 제자로서 대둔산 안심사에서 활동한 승려이다. 이로써 소요 태능, 목양 색, 백곡 처능, 추계 유문의 4인 모두 임제종파의 벽송 지엄과 부용 영관의 계통을 잇는 청허계나 부휴계의 영향력 있는 승려였음을 알 수 있다.

김봉규, “백곡 처능,” [불맥. 44], 영남일보, 1999.1.8.
 23)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연구: 임제법통과 교학전통』 (서울: 신구문화사, 2010), 112.
 <임성 충언 → 원응 지근 → 추계 유문, 목양 명색>은 李哲教, 一指, 辛奎卓 共著, 『禪學辭典』 (서울: 佛地社, 1995), 894-895 참고.

3.1.2 간행처

『심법요초(心法要抄)』는 처음에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가 50여 년이 지난 후에 목양 색(牧羊蹟)이 한 번 보고서 그것이 귀중한 것임을 알아보았으므로²⁴⁾ 1664년에 대둔산 안심사에서 간행되었다.

안심사(安心寺)는 전라북도 고산, 지금의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 대둔산(大屯山)에 있는 사찰로서 638년(신라 선덕여왕 7)에 자장(慈藏)이 세우고 부처의 사리 10과와 치아사리 1과를 이 절에 봉안하였다고 한다. 창건설화에 따르면, 자장이 기도하던 중 부처가 나타나 ‘열반성지 안심입명처로 가라’고 하였다. 자장이 마침 이곳에 와 보니 산세가 부처의 열반상을 닮았으므로 절을 짓고 안심사라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안심사 사적비²⁵⁾에는 고려 태조[재위: 918~943] 때 활동하던 조구(祖求)가 세웠다고 적혀 있다.

875년(현강왕 1) 도선(道詵)이 중창하고, 1601년(선조 34)에 수천(守天)이, 1710년(숙종 36)에 신열(信悅)이 각각 중창하였다. 당시 이 절에는 대웅전과 약사전 등 30여 동의 건물과 석대암(石臺庵), 문수암 등 20여 개의 암자가 있었다고 한다. 이 때 명옹(明膺)이 부도전을 세우고 부처 사리를 모셨으며, 영조가 직접 글씨를 써서 보내와 어서각(御書閣)을 세워 보관하였다. 이 절에는 『원각경』과 『금강경』, 『부모은중경』 등 한글경판 658판이 전했으나 6·25전쟁 때 불에 타 없어졌다.

1759년(영조 35)에 세워진 안심사 사적비는 안심사의 역사와 부도전의 건립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비문은 1행 58자로 비의 전후좌우 4면에 새겼는데, 앞면의 비문은 당시(1658) 안심사의 스님 처능(處能)이 주지 명능(明能)스님의 뜻을 전하며 부탁하여 우의정 김석주(金錫胄, 1634~1684)가 안심사의 사적을 찬(撰)하였고, 이것을 100여년 후에 이조판서를 지냈던 홍계희(洪啓禧, 1703~1771)가 글씨를 썼고, ‘大屯山安心寺碑’라는 비석 이름은 영의정 유척기(兪拓基, 1691~

24) 김영욱, 조영미, 한재상 역주, 『정선 휴정(精選 休靜)』, 321-322 참조.

25) 金錫胄, “有明朝鮮國全羅道高山縣大屯山安心寺事蹟碑銘并序,”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http://gsm.nrcip.go.kr/_third/user/viewer/viewer01.jsp}. 2011.7.8 접속.

1767)가 썼다. 사적비의 내용을 보면, 안심사는 다섯 차례에 걸쳐 중창(重創)하였음과 안심사에 대한 역사적 내력 및 부도전(浮屠殿)을 건립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대둔산 안심사에 주석하였던 백곡 처능은 청허·부휴계의 주류 법맥을 잇는 영향력 있는 승려로서 안심사를 중흥하고자 한편으로는 안심사 사적비의 비문을 받으러 당시 우의정인 김석주를 찾았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임진왜란 이후 명성이 높았던 서산의 저술 가운데 선사상의 요점을 전하는 「심법요초」를 간행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3.2 판본

현재 전하는 「심법요초」는 다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時甲辰菊月日大菴山安心寺新刊留置”라는 간기가 있는 안심사판본과 발문의 “刊鍾峯手稿于海印也”라고 기록되어 있는 해인사판본의 2종류로 대분할 수 있다.

<표 1> 「심법요초」의 판본 비교

	안심사판본	해인사판본
서명	心法要抄	心法要抄
간기	時甲辰菊月日大菴山安心寺 新刊留置	刊鍾峯手稿于海印也(발문)
판종	목판본	목판본
판식	不分卷 1册, 四周單邊, 半郭: 19.1 × 14.4cm, 無界, 9行18字, 大黑口, 無魚尾, 24.2 × 17cm	不分卷 1册, 四周單邊, 半郭: 21 × 15.5cm, 無界, 10行21字, 上下內向黑魚尾, 28 × 18.3cm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계명대 동산도서관 UC버클리대 도서관 양덕사(언양)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이하 규장각)

안심사판 「심법요초」는 목판본으로 不分卷 1책이다. 변란은 四周單邊이고, 半

郭은 19.1 × 14.4cm이며, 無界, 9行18字이다. 판구는 大黑口, 無魚尾이고, 책의 크기는 24.2 × 17cm이다. 권두에 백곡 처능(白谷 處能)이 쓴 서문이 있고, 본문이 있으며, 권말에는 추계 유문(秋溪 有文)의 지(識)와 “時甲辰(1664, 顯宗 5)菊月日大菴山安心寺新刊留置”라는 간기가 있다. 이로 미루어 1664년(현종 5) 9월 전라도 고산 대둔산 안심사에서 새로 판각 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해인사판 『심법요초』도 목판본으로 不分卷 1冊(13張)이다. 변란은 四周單邊이고, 半郭은 21 × 15.5cm이며, 無界, 10行21字이다. 판구는 上下內向黑魚尾이고, 책의 크기는 28 × 18.3cm이다. 발문의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刊鍾峯手稿于海印也”로 미루어 해인사에서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간기가 없어 정확한 간행년은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심법요초』 안심사판본과 해인사판본의 형태사항을 비교해 본 결과, 현존하는 『심법요초』는 서로 달리 인출된 이본(異本)임을 알 수 있다.

이 두 판본의 내용 구성이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해 안심사판본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양덕사 소장본과 해인사판본인 규장각 소장본, 원문이 전제된 동국대학교 한국불교전서본²⁶⁾ 등 4책의 편차를 비교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심법요초」의 편차 비교

	안심사판본		해인사판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양덕사 소장본	규장각 소장본	韓國佛敎全書本
서문	處能의 序	處能의 序	X	處能의 序
본문	(서설) ²⁷⁾	(서설)	(서설)	(서설)
	敎學者病	敎學者病	敎學者病	敎學者病
”	禪學者病	禪學者病	禪學者病	禪學者病
”	三乘學人病	三乘學人病	三乘學人病	三乘學人病
”	參禪門	參禪門	參禪門	參禪門
”	念佛門	念佛門	念佛門	念佛門
”	三種淨觀	三種淨觀	X	三種淨觀

26) 東國大學校 韓國佛敎全書編纂委員會 編, 『韓國佛敎全書』, 第7冊, 朝鮮時代篇 1 (서울: 東國大學校 出版部, 1990), 647-654.

27) 서설(序說)이라는 표식은 없으나 내용이 서설에 해당함.

서산대사의 「심법요초(心法要抄)」에 관한 서지적 연구

	안심사관본		해인사관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양덕사 소장본	규장각 소장본	韓國佛敎全書本
"	禪頌	禪頌	X	禪頌
"	念頌	念頌	X	念頌
"	敎家五十五位	敎家五十五位	敎家五十五位	敎家五十五位
"	敎外別傳曲	敎外別傳曲	敎外別傳曲	敎外別傳曲
"	直指心印無方便	直指心印無方便	直指心印無方便	直指心印無方便
"	初發心菩薩修行	初發心菩薩修行	初發心菩薩修行	初發心菩薩修行
"	大乘人修行	大乘人修行	大乘人修行	大乘人修行
"	禪家知解二字最爲病	禪家知解二字最爲病	禪家知解二字最爲病	禪家知解二字最爲病
"	上根大智自悟處	上根大智自悟處	上根大智自悟處	上根大智自悟處
"	人人本大平	人人本大平	人人本太平	人人本大平
"	當人自肯悟處	當人自肯悟處	當人自肯悟處	當人自肯悟處
"	佛說三句	佛說三句	佛說三句	佛說三句
"	法中本無病鬼	法中本無病鬼	法中本無病鬼	法中本無病鬼
"	本法本無見	本法本無見	本法本無見	本法本無見
"	師資無傳授處	師資無傳授處	師資無傳授處	師資無傳授處
"	無慧偏見	無慧偏見	無慧偏見	無慧偏見
부록	墻壁頌	墻壁頌	江西百丈黃蘗臨濟 四大師上堂序 四溟述	江西百丈黃蘗臨濟 四大師上堂序 四溟述
"	傳道吟	傳道吟	西山贈玩虛堂傳法偈	西山贈玩虛堂傳法偈
"	贈熙長老	贈熙長老	玩虛堂臨終偈	玩虛堂臨終偈
"	金剛山彌勒峯偶吟	金剛山彌勒峯偶吟		
발문	秋溪有文의 識	秋溪有文의 識	(작자 미상)	(작자 미상)
간기	刊記(安心寺)	刊記(安心寺)	X	
	발원문		X	
	施主秩		化主秩	
			手也黃龍病夫序	
장수	19張	18張	13張	

위 <표 2>에서 보듯이, 안심사관 「심법요초」의 편차를 보면, 권수부에 처능의 서문, 본문, 권말부의 부록과 발문, 간기, 발원문, 시주질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해인사관 「심법요초」의 편차를 보면, 본문과 권말부의 부록과 발문(저자 미상), 화주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판본의 본문을 비교하면, 해인사판본에는 <三種淨觀>, <禪頌>, <念頌>의 3항목이 탈락되어 있다. 그런데 해인사판본 발문에서 “종봉의 수고를 해인사에서 간행하였다. 이 책도 뽑아서 간행하였으므로 없는 것이 많다[刊鍾峯手稿于海印也此集亦抄而刊焉所欠者多矣].”²⁸⁾고 하였다. 이를 볼 때 3항목이 빠진 것을 두고 “없는 것이 많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서산이 저술한 『심법요초』의 초고(草稿)는 현전하는 안심사판본보다 내용이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 판본 권말부의 부록을 비교하면, 부록이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내용이 다르다. 안심사판본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과 양덕사 소장본의 부록에는 시 4편, <牆壁頌>, <傳道吟>, <贈熙長老>, <金剛山彌勒峯偶吟>이 실려 있다. 이 시들은 휴정의 문집인 『청허당집(淸虛堂集)』에 실려 있는 것을 아래의 <표 3>과 같이 확인하였다. 이처럼 안심사판본에서는 본문과 부록이 모두 청허 휴정의 글로 편차되어 있다.

<표 3> 안심사판본 「심법요초」 부록의 출처

『심법요초』의 부록에 실린 시	출 처
牆壁頌	청허당집 補遺(4권본)
傳道吟	청허당집 권3, 七言絶句
贈熙長老	청허당집 권2, 五言絶句
金剛山彌勒峯偶吟	청허당집 권1, 七言律

해인사판본인 규장각 소장본은 권말의 부록에 사명이 구술하고 제자 쌍홀이 받아적은 <강서·백장·황벽·임제 4대사²⁹⁾ 상당서(江西百丈黃蘗臨濟 四大師上堂序)>와 <서산이 완허당³⁰⁾에게 준 전법계[西山贈玩虛堂傳法偈]>, <완

28) 김영욱, 조영미, 한재상 역주, 『정선 휴정(精選 休靜)』, 328.

29) 강서는 마조 도일(馬祖 道一), 백장은 백장 회해(百丈 懷海), 황벽은 황벽 희운(黃蘗 希運), 임제는 임제 의현(臨濟 義玄)을 가리킨다.

30) 완허당(1530~1619)의 이름은 원준(圓俊)이고, 속성(俗姓)은 표씨(表氏)이며, 홍원(洪原) 사람이다. 구월산(九月山)의 연공(蓮公)을 배알하고 머리를 깎고 수계(受戒)하였다. 태백산으로 옮겨가 휴정(休靜)에게 참배하였다. 이후로 잠심(潛心)하여 수련하기를 십여 년에

허당 임종계(玩虛堂臨終偈)>의 3편의 글이 실려 있다. 권말의 발문에 의하면, 부록에 이 글들을 실은 뜻은 “사명과 완허당 두 대사는 모두 서산으로부터 법을 전수받은 제자로서 <사대사의 상당 서문>과 <임종계>를 남겼다. 이 두 글은 너무 짧아서 따로 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함께 붙여 둔 것이니 이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기 바란다.”³¹⁾고 하였다. 하지만 실려 있는 글은 이 두 편 이외에 <완허당전법계>가 추가되어 세 편이 실려 있다.

해인사판본에서 부록한 <江西百丈黃蘗臨濟 四大師上堂序>는 임제종의 원류에 대한 사명의 글이다. 이를 「심법요초」의 본문 뒤에 부록한 것은 서산의 여러 문과 가운데 사명파가 은연 중 적통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으나 추측된다.

부록 다음에 안심사판본에는 권말의 발문, 간기, 발원문, 시주질로 편차되어 있는데 비해, 해인사판본에는 발문, 화주질(化主秩), <手也黃龍病夫序>로 편차되어 있다. 다만 안심사판본 가운데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은 19張으로 권말에 발원문과 시주질이 있으나, 양덕사 소장본은 18張으로 발원문과 시주질이 없는데, 이는 마지막 장이 결락된 것으로 짐작된다. 해인사판본의 마지막에 편철되어 있는 <手也黃龍病夫序(1장)>는 서체와 항자수[10行20字]가 본문과 다르고, 내용도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인출하여 장책할 때 추가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과 같이 현존하는 「심법요초」의 판본은 목판본으로 간행처에 따라 안심사판본과 해인사판본의 2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 2종은 판식, 편차와 부록의 내용도 다르다. 판식을 보면, 안심사판본은 9行18字, 大黑口, 無魚尾이고, 해인사판본은 10行21字, 上下內向黑魚尾이다. 편차를 보면, 안심사판본은 처능의 서문, 본문, 부록, 발문, 간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해인사판본은 본문과 부록, 발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문도 3항목이 빠져 있다.

이르렀으나 자만(自滿)하지 않았다. 휴정이 그릇으로 여기고서 이에 의발(衣鉢)과 계송(偈頌)을 주고 당겨 올려 법사(法嗣)로 삼아 자신이 다하지 못한 것을 힘쓰게 하였다.

下獻, “玩虛堂圓俊大師石鍾銘并序,”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http://gsm.nricp.go.kr/_third/user/viewer/viewer02.jsp}. 2012.11.17 접속.

31) 김영욱, 조영미, 한제상 역주, 『정선 휴정(精選 休靜)』, 328.

부록의 내용을 보면, 안심사판본은 서산의 시 4편으로 구성된 반면에, 해인사판본에는 서산의 제자인 사명과 완허당의 저작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안심사판본과 다르게 해인사판본에서는 부록에 사명과 완허당의 글을 실은 것은 서산의 여러 문과 가운데 사명파가 간행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4.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서산대사가 저술한 『심법요초』를 중심으로 저자인 휴정의 생애와 저술, 『심법요초』의 간행자와 간행처, 판본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법요초』를 저술한 서산대사는 조선중기의 유불을 통섭한 승려로서 국가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 전장으로 나선 행동하는 지식인이다.

현전하는 『심법요초』는 안심사판본과 해인사판본의 2종이 있으나, 간행에 관해서는 서문과 발문, 간기 등에 간행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안심사판본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안심사판 『심법요초』의 서문과 발문을 보면, 『심법요초』가 세상에 전해져서 간행되는 데에 기여한 이는 ① 서산의 저술인 『심법요초』를 보관하여 남긴 소요 태능, ② 그 가치를 알아보고 유포하고자 한 목양 색, ③ 목양색을 도와서 『심법요초』를 간행한 추계 유문, ④ 『심법요초』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서문을 썼던 백곡 처능의 4인이다.

이들의 법계를 보면, 소요 태능은 청허 휴정, 즉 서산의 4대 제자의 한 사람이고, 목양 색은 추계 유문과 동문수학한 목양 명색으로 추정되며, 추계 유문은 서산 문하 정관과의 4대 조사이며, 백곡 처능은 휴정과 동문수학한 부휴선수의 재전(再傳) 제자로서 대둔산 안심사에서 활동한 승려이다. 이로써 소요 태능, 목양 색, 백곡 처능, 추계 유문의 4인 모두 임제종파의 벽송 지엄과 부용 영관의 계통을 잇는 청허계나 부휴계의 영향력 있는 승려였음을 알 수 있다.

「심법요초」는 “時甲辰菊月日大菴山安心寺新刊留置”라는 간기로 보아 갑진년에 전라도 고산의 대둔산 안심사에 간행되었다. 서산이 세상을 떠난 지 50년 후에 목양 색이 그 가치를 발견해서 간행했다고 하니, 갑진년은 1664년이 된다.

17세기 중반 대둔산 안심사에서 활동했던 백곡 처능은 안심사를 중흥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당시 우의정인 김석주에게 안심사 사적비의 비문을 받으러 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임란 이후 명망이 높았던 휴정의 저술 가운데 선(禪) 사상의 핵심을 보여주는 「심법요초」의 간행을 지원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현전하는 「심법요초」의 판본은 목판본으로 안심사판본과 해인사판본의 2종이 전한다. 이 두 판본은 판식, 편차, 부록의 내용이 상이한 이본이다. 2종 모두 不分卷 1책으로 안심사판본은 9行18字, 大黑口, 無魚尾이고, 해인사판본은 10行21字, 上下內向黑魚尾이다. 편차를 보면, 안심사판본은 처능의 서문, 본문, 부록, 발문, 간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해인사판본은 본문과 부록, 발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문도 3항목이 빠져 있다. 안심사판본은 부록이 서산의 시 4수로 이루어진 데 비해, 해인사판본은 부록에 서산의 제자인 사명과 완허당의 글이 실려 있다. 이로 미루어 해인사판본은 서산의 여러 문과 가운데 사명파에서 인출한 것으로 추측된다.

앞으로 서산의 다른 저작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서지적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淸虛堂集」, 「心法要抄」.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연구: 임제법통과 교학전통』. 서울: 신구문화사, 2010.

김영욱, 조영미, 한재상 역주. 『정선 휴정(精選 休靜)』. 한국전통사상총서 불교편

3.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韓國傳統思想叢書刊行委員會, 2010.

東國大學校 韓國佛教全書編纂委員會 編. 『韓國佛教全書』 第7冊. 朝鮮時代篇

1. 서울: 東國大學校 出版部, 1990.

- 朴敬勛 譯註. 『淸虛堂集』. 佛教叢書 6. 東國大學校 附設 譯經院, 1993.
- 朴相國 編著. 『全國寺刹所藏木板集』. 서울: 文化財管理局, 1987.
- 李哲教, 一指, 辛奎卓 共著. 『禪學辭典』. 서울: 佛地社, 1995.
- 중앙승가대학교 승가대신문사 편. 『한국불교인물사상사』. 서울: 중앙승가대학교 승가대신문사, 2000.
- 김순옥. “西山大師의 禪教觀에 관한 考察.” 『석림(동국대학교 석림회)』 제22호 (1989). 53-65.
- 김용태. “심법요초 해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kyujanggak.snu.ac.kr/MOK/CONVIEW.jsp?type=MOK&ptype=list&subtype=sm&lclass=AL&mclass=&sclass=&ntype=hj&cn=GR30699_00}. 2011.7.12 접속.
- 김봉규. “백곡 처능.” [불맥. 44]. 영남일보. 1999.1.8.
- 목정배. “청허당 행장: 서산대사의 사상과 생애.”
{<http://blog.daum.net/park3854a/1004>}. 2012.10.4 접속.
- 백운청산. “서산휴정의 선정관 연구(3): 휴정의 저서(1).”
{<http://mangsang15.egloos.com/460797>}. 2012.11.23 접속.
- 백운청산. “서산대사의 깨달은 기원과 사상.”
{<http://blog.daum.net/saribull/11737063>}. 2011.9.12 접속.
- 宋日基. “『禪家龜鑑』 成立考.” 『書誌學研究(書誌學會)』 제7집(1991. 6).
- 황인규. “[高僧 다시보기]휴정 스님과 조선불교 증흥 (끝).” 현대불교 홈페이지.
{<http://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614>}. 2011.7.3 접속.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네이트 한국학. {<http://koreandb.nate.com/history/people/detail?sn=10543>}.
-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37006>}

&mobile&categoryId=200000094}.

문화재청. {<http://www.cha.go.kr>}.

전통사찰관광종합정보. {<http://www.koreatemple.net/>}.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http://gsm.nricp.go.kr/_third/user/main.jsp}.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www.nl.go.kr/korcis>}.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